

2015.07.14.

연세대학교 제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기획단 세미나 4회차

세미나를 열며

생활 나누기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돌아가며 30초, 1분씩 생활 나누기 해봐요!

세. 다. 페. 공동체 자치 규약

OT에서 함께 만든 공동체 자치 규약, 다시 한 번 읽어볼까요?

- 다양성 인정하고 존중하기
 - 다양한 성 고려하기
 - 외모를 존중하기
 - 상대방에 대해 가정하지 않기 (예: 이성애자일 것이라 가정)
 - 장애인지 감수성 갖기
- 서로 관심 갖고 알아가기
 - 누군가 소외되지 않게끔 관심 가져주기
- 시간 약속 잘 지키기
 - 늦거나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기 (적어도 전날까지)
- 술 강권하지 않기
-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기
 - 섭섭한 것이 있으면 먼저 둘의 진솔한 대화로
 - 불편한 것이 있으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예: X선비, 젠더충, 진지충, 꼴페미라고 비난하지 않기)
- 서로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일 분배하기
- 비밀 유지
 - 세미나에서 나온 서로의 내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기
- 상대방 말 끝나고 발언하기
- 합의 하에 상호존대/상호반말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 약속 몇 가지

하나. 발제문, 심화 리딩 등을 읽거나 토론을 하다 보면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안 되는 개념 어들이 종종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군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편하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해보아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최대한 쉽게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아요. 누군가가 한 답변에서 부연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도 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해요.

둘. 우리가 읽고 토론할 글들은 결국에는 누군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을 드러내는, 하나의 '해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글을 읽다 보면, 아무리 훌륭한 이론가의 글이라도 정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면 세미나 자리에 들고 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보아요. 그러면 세미나도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을 거고, 서로의 지적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셋. 절대 부담 가지지 말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요. 세미나의 주제와 이어지는 흥미로운 텍스트, 그림, 음악, 영화, 웹툰, 워든지 등등이 있다면 가지고 와서 공유해주세요. 정말 큰 복을 받으실 거예요. 혹시 정말 이 얘기는 꼭 나누고 싶거나, 발제를 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기획단에게 미리 연결을 주시고 발제를 준비해보는 것도 좋아요. 한 문장, 이야기 한 토막이라도 이야기해 보고 싶은 게 있으면 같이 꼭 나누어 보아요.

넷. 세미나가 서로의 경험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해요. 세미나 내부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외부에서 함부로 소비하거나 이야기하지 않도록 해요.

다섯. 가장 중요한 부분. 혹시 세미나를 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생긴다면, 절대 혼자서 삭이지 말고 세미나 기획단, 혹은 세미나 자리에서 모두와 함께 꼭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결국, 이 세미나도 모두가 잘 좀 살아보자고 하는 거니까요. 세미나로 누군가가 소모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누군가 지치거나, 소모되거나, 불편해지는 세미나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니까요.

4주차 - 신자유주의 시대의 몸

발제자: 해운/esse

신자유주의 시대,

누구도 몸에 대한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신자유주의가 빠른 시간에 확산된 것은 무엇보다 신자유주의가 표방한 '자유'가 가진 매력 때문일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새로운 '자유'를 주장한다. 즉 개인의 선택의 자유, 정부로부터 간섭 받지 않을 자유,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추구할 자유를 강조함으로써 역사의 어느 시기보다도 '개인'의 자유를 역설했다. 그러나 그 개인은 보편적인 휴머니즘에 기반을 둔 '인격'을 가진 개인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적극적인 행위자인 '재산'을 가진 개인이다. 신자유주의하에서 인간의 행복은 시장을 '자유롭게 만들 때 증폭되고, 특히 국가나 전통적 공동체의 개입은 무엇보다 구속적이라고 간주된다.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안전망이나 복지보다 개인의 재산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부유한 개인, 또는 부유해지고 싶어하는 개인의 물질 욕망을 옹호한다. 이렇게 시장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되면서 모든 것은 시장 경제의 회로 속으로 흡수되었다. 교육이나 돌봄 같은 사회의 재생산에 필요한 공공재부터 생명, 아름다움, 행복, 자기 계발, 치유와 같은 비물질화된 가치까지 투자와 매매가 가능한 상품이 되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개인, 곧 소비자가 된다.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적 실천이 지배하면서 진실로 자유로운 개인이 오히려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 개인의 욕망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우리 모두가 치러야 할 경제적·정서적 고통은 깊어 가고 있다. 정치적 발언권은 부를 기준으로 한 서열에 따라 부여되고 있으며, '나'라는 개인에 속했던 많은 부분이 나에게서 분리되어 관리와 경영의 대상이 되었다. 외모나 명품 등 '보이는 것'에 따라 인격을 판단하는 현상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¹⁾

외모는 한 개인의 가치관, 시간 사용, 다이어트, 감정의 관리, 자기 통제, 자기 확신 등 신자유주의 시대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응축적으로 드러나는 핵심적인 상징 기호로 기능한다. 따라서 오늘날 '나 주식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개인은 외모를 통해 상품 가치를 지닌 인적 자원으로서 자신을 만들어 내고 홍보한다.²⁾

일상을 규제하는 몸/외모에 대한 평가

- "부피가 커졌다", "살찼다", "예뻐졌다", "살 빠졌다", "얼굴에 뭐가 났다", "어디 아파보인다", "뭔가 변한 거 같다", "취업할 생각 없냐", "정말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다", "왜 백팩을 매고 왔냐" ... 등등등. 다양한 경험 나누기

완벽한 외모의 불가능성

〈렛미인〉과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은 긍정적 인간들이 더욱 완벽한 긍정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그리면서 인기를 얻는다. 그러나 이렇게 탄생한 완벽한 긍정성, 즉 '그림자 없는 인간'은 앞으로 필연적으로 덧붙여지게 될 단 하나의 그늘과 결핍에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미인'은 이를 제거하기 위해 계속 칼을 달 것이고, 그녀는 언젠가 과몰이 될 것이다. 최정상에 오른 오디션 '슈퍼스타'는 사실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으며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 완벽한 긍정성은 완벽한 부정성을 예비한다. 오직 마이너스(-)만이 이들을 기다린다.³⁾

'렛미인5'를 두고 제작진과 여성단체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방송을 당장 중단하지 않더라도 다음 시즌이 제작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여성단체의 주장.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11일에는 포럼을 개최해 'TV 성형 프로그램을 통해 본 의사, 병원 방송 협찬의 문제점'을 짚어본다는 계획이다. 포럼에 앞서 일간스포츠가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사무국장을 직격 인터뷰 했다.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

"첫 방송에 출연한 사례자를 보면 외모로 인해 고용 차별을 받은 분이었다. 그 상황에서 외모로 인해 고용차별 하는 사람이 나쁜 것 아니냐. 방송을 보면 그분이 얼굴을 성형해서 고용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다. 고용차별을 받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어쩌라는거지?'라는 생각이 들거다. 구조적인 변화 없이 사례자 한명만 성형해주면서 인생을 완전히 고쳐줄 것처럼 하는 판타지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⁴⁾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현실에 의문 제기하기로

이런 상황에서 페미니즘의 현실 개입은 조심스럽다. 여성들이 소비문화에 이용당하고 있거나 여전히 남성의 시선을 체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기에 현실은 매우 복잡하고 모순적이다. 따라서 페미니즘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성들의 생각과 자기 해석을 경청해야 한다. 이 점에서 여성들이 외모 관리에 몰입하고 있는 현실뿐만 아니라 외모 지상주의에 의해 거의 모든 여성(그리고 남성)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못생긴 오코너들의 자기변명이자 피해 의식'이라는 재갈에 물려 거의 모든 여성들은 발언권뿐만 아니라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생사여탈권을 박탈당해 왔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또한 외모 관리에 성공해 잘나적 보상을 받는 소수 여성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모 관리를 해야 사랑을 받고, 취직이 되며, 자신감과 자아가 생기는 현실 자체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⁵⁾

1) 김현미, 『친밀한 적』, 2010

2) 김고연주, 『나 주식회사』와 외모관리, 『친밀한 적』,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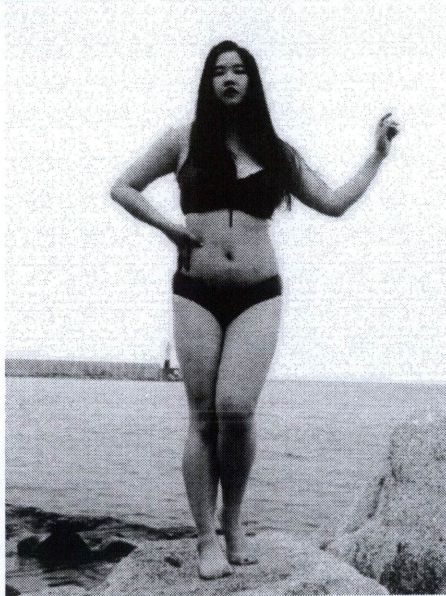
3) 문강형준, 「긍정적 인간이란 무엇인가」 중, 『말과 활』 3호, 2014

4) 이소은, 여성단체 "렛미인5", 다음 시즌은 없어야, 일간스포츠, 2015.06.11

5) 한국여성민우회, 『동동해서 죄송합니다?』, 후마니타스, 2013

'다르지만 아름답다'가 대안일까

- <똥똥해서 죄송합니까>와 <66100>



김지양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마른 사람이 아니면 똥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마르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나가다 눈이 마주쳤을 때 "돼지야 뭘 봐"라고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을 들어봤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정말 심한 폭력인데 아무렇지 않게 말 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특히 편견이 심한 것 같다"고 말해 자신이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된 배경을 밝혔다.⁶⁾

"죄송합니다." 빅뷰티(25·가명)가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와 고층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길이었다.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멈추더니 한 아저씨가 왔다. '빠~' 하중 제한 표시가 뜨며 경고음이 나왔다. 빅뷰티의 어머니가 구석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나지막이 내뱉었다. 빅뷰티의 어머니는 고도비만이다. 그는 어린 빅뷰티에게 "넌 예뻐져야 한다. 그래야 부자와 결혼하니까"라는 주문을 되뇌곤 했다. 빅뷰티의 어머니는 늘 자신의 큰 몸을 책임지고 그를 닮은 딸을 보며 속상해했다. <똥똥해서 죄송합니까>(한국여성민우회 지음, 후마니타스 펴냄)의 제목은 어머니가 스스로 굴욕을 허락한 그 순간을 잊지 못하는 빅뷰티의 사연에서 비롯했다. (중략)

6) 하희철 기자, '66100' 한국 최초 '플러스 사이즈 패션 잡지' 만든 김지양은 누구?, 메트로서울, 2015-03-12,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id=2015031200033>



외모 관리의 압박에 짓눌리는 많은 여성들이 비현실적인 외모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강박적으로 체중계 위에 올라선다. 헤영 제공

'내 몸을 사랑하는 40가지 방법'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은 "어느덧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외모 품평을 즐기는 문화에 익숙해 있는 우리 생활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썼다. 평생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특정한 기준에 끼워맞추느라 아팠다는 오부(23·대학생)를 비롯해 이 캠페인을 응원했던 이들이 제안한 '내 몸을 사랑하는 40가지 방법'은 소소하지만 희망적이다. 하루를 마치고 맨손으로 비누칠을 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토닥거려주기, 영화 <파니 핑크>의 주인공처럼 매일 '나는 나를 사랑한다'는 주문 외우기, 함부로 외모를 지적했던 사람에게 무례함을 일깨워주기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이다. 비현실적인 외모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더 쉽고, 건강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⁷⁾

몸에 대해 말하지 않기/말하기

우리는 획일화된 미의 기준에 맞춘, 몸에 대한 일상적인 평가와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몸을 갖고 몸에서 살아가는 한 몸을 보거나 생각하지 않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부정하고 있는 현재의 몸을 직면하고, 이야기하고, 사랑스럽게 여겨줘야 하지 않을까.

7) 신소윤 기자, 「아름다움에 목매는 거대한 감옥」, 한겨레21, 2013-12-13

몸에 대한 경험 나누기

2012 세계 여성들에게 말하는
몸은 몸

2012.11.20(화) 19:30
홍대 클럽 크랙

10명의 스피커와 함께하는
몸에 관한 솔직한 말하기 한판

여성 몸에서 이루어지는
임신, 출산, 월경, 환경, 호르몬, 갱년기, 낙태, 피임 등은
여성의 건강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불평등한 이성애 관계, 법과 제도,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에,
결혼 밖 성관계나 임신에 비난하고
나이든 여성과 몸과 성을 부정하는 분위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의 비저로 결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큰몸 빼자는 남친 때문에 짜증난다!”
“산부인과 경험은 왜 이렇게 골육직인가요?”
“낙태했다고 범죄자라고?”
“매달 겪는 생리통이 너무 괴로워!”

여성의 몸과 건강 그리고 삶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고민, 지식, 아이디어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내고 함께 나누는 자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몸의 경험을 나누고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각자 지나온 삶을 더 잘 이해
하게 해주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가 뿌리내리고 살아야 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의 몸'에 맞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분명한 지
침을 주는 일이기도 하다.⁸⁾

8) 연화, [언니네 방앗간] 당신의 몸을 기억하라-몸몸몸 말하기 대회'를 다녀와서, 인권오름, 2012-11-28

질문들과 이야깃거리, 자유롭게 생각을 나눠보아요

- 문강형준은 외모중심주의를 성찰하고 비판하는 데 있어 "사람들이 '너무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이나 '정치적 올바름'의 강조가 의도와는 달리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는 어떻게 다가가는 게 '효과적'일까?
- 이른바, 외모지상주의라는 담론에 비판을 가할 때 여성'만'의 고통을 강조하는 것, 또는 여성을 남성의 '대상화'에 의한 피해자로만 규정하는 것은 어떤 한계를 가지며, 어떤 정치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까?
- 오늘 '날의 외모관리 담론과 성적 대상화도 여전히 완벽히 남성(가해자) - 여성(피해자)의 구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 자신의 몸 경험 말하기
- 어떤 외모/몸이 사회적으로 '이상적'이거나, '이상적이지 못 한' 몸으로 이야기 될까?
- 신자유주의적 담론 이외에도, 외모나 몸을 가꾸는 것이 이토록 중요해진 이유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 (속고 없는 선부른 대안은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답답함을 참을 수 없어 외침) 그래서 대안이 대체 뭐란 말이야~